

큰물당 조상님은
할루산 섯어깨
무유알에서 솟아나니
그 할으방이
삼방굴사로 누렸수다.
이 때에 산듯이
삼백머리가
삼방구절에 노리까
삼방골새 구절머리로
산듯을 다울리는 것이
골은 아흔아홉골이라.
동골로 누리민
섯골로 오고
번냈골로 올르민
앞골로 누리고, 흐는 것이
아흔아홉골을
다 돌았수다.
남신 신은냥
삼방굴로 누려서
큰물당물 누려서
그 산듯 삼백머릴
잡아서
설 빼여먹고
여지물동산 도올라
좌우방을 술펴보니,
큰물머리에
좌정흘만 흐여
거기 집을 지어
살았수다.
그 때에 농수도 아녜고
큰물꼴챙이가 있었다,
거길 전부 논을 맨들어서
농수를 지니
천하 거부로 살아.
이 때에

호를 날은
소서중이 권제 삼문 받으레
누르스니.
“어떤 일로 권제 삼문 받으레
누렸느냐?”
“현당이 떨어지고
현절이 떨어져서
권젤 삼문 받아당
현절수리 현당수리
호젠 누렸수다.”
“그건 현당수리
현절수리 호민 뭘 호느냐?”
“귀홍 천홍을 아옵소서.”
“귀홍 천홍을
어찌 호여 알겠느냐?”
“되 아홉, 말 아홉, 홉 아홉,
푸는체 아홉을
매일 당물에서 시쳐서
일뢰간을
식전 아침이
문전으로 올랫??지 엎어서
글로
바라가곡 바라오곡 호시오,
그 때는 귀홍 천홍을
알 껍네다.”
아닐서라 그 할으방이
되 아홉, 말 아홉, 홉 아홉,
푸는체 아홉을
매일 식전 아침이
일뢰간을 시쳐서
문전으로 올랫??지 엎어서
글로
바라가곡 바라오곡 호여가니.
이 때에 대오방 수천리에서
수이가 지여서
물이 북거,
논에 나록이
전부 극쌀어가비여,

흐니.
승년이 지여.
“이거 조손들도
귀함 천함을 알겠다.” 흐여,
할으방은 그 때에
이 모실에
짐집 상단골 흐고,
조집 상단골 흐고,
이집 상단골에
논덜을
앞궤판이, 중궤판이
하궤판이를.
강답, 수답 훌 게 웃이
다 조손가지에
분짓시겨 줍비니.
그 땃 법으로
큰물당 조상님께
흔 해에 흔 번씩
나록 흔뭇씩
이 본당 맨 사름은
다 갖다 줍네다.

제일 1월 1일, 과세제
3월 15일, 대제일
8월 15일, 시만국제

<안덕면 사계리 여무 48세 고인옥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533-534.